



25일 오전 광주일보 주최 '2020 Green 자전거 축제'에 참가한 라이더들이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전거 타고 가을 속으로 ... 코로나에 지친 심신 '힐링'

500여명 동호인·가족·친구와 함께 사랑코스 45km·행복코스 25km 질주 영산강변 달리며 가을의 정취 즐겨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자전거 축제가 펼쳐졌다.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25일 오전 9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산강자전거

길안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 주관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 가족, 친구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 코스를 달리며 승촌보, 풍영정, 만귀정 등 영산강변의 절경을 즐겼다. Green 자전거 축제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시민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 라이더들이 손꼽는 자전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위를 가리는 여느 대회와 달리 '화합과 안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는 물론 초심자, 여성, 세대를 아우른 가족들이 다수 참가해 자전거를 즐겼다. 비경쟁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광주시 서구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에서 출발해 서창교·승촌보·홍어1번지·영산대교를 지나 출발

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랑코스'(45km)와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승촌보안내센터를 돌아오는 '행복코스'(25km)로 나뉘어 열렸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선두에 서서 참가자들을 이끌고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축제에 앞서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MC 신조환씨의 진행으로 초대가수,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장은 "Green 자전거축제는 경쟁하는 행사가 아닌 만큼 참가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라

이딩을 즐겼으면 한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재수씨 가족이 25일 오전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25km '행복코스' 출발에 앞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신명훈군, 신예원양, 조민영·신재수씨.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4명이 함께 화이팅하며 완주해 기뻐요"

광산구 수완동 신재수씨 가족 "내년엔 45km 코스 도전할게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을 바람을 맞으며 영산강변을 달리는 기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Green 자전거 축제는 경쟁 없이 가족과 함께 달리는 코스로 인기가 많다. 광산구 수완동에 거주하는 신재수(49)씨와 조민영(여·47)씨는 아들 신명훈(12)군, 딸 신예원(9)양과 함께 페달을 밟았다. 조씨는 "꼭 한번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 최근 자전거 축제가 열린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참가하게 됐다"고 참가 계기를 밝

혔다. 처음으로 자전거 축제에 참가한다는 신씨 가족. 특히 예원양은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 라이더'다. 신씨는 "완주를 목표로 달리기도 좋지만, 좋은 날 좋은 풍경 보며 즐기려고 왔다. 혹시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달리는 것만으로 좋다"며 출발선에 섰다. 신씨 가족은 이날 극락교에서 승촌보까지 달리는 25km 코스에 도전, 완주에 성공했다. 조씨는 "승촌보까지 25km를 달려본 건 처음이었다. 힘들었지만, 도착하고 보니 뿌듯한 마음에 힘든 게 잊혀졌다"며 웃었다. 명훈군, 예원양도 "가족과 함께 달릴 수 있어 재미

있고 좋았다. 다음에 축제가 또 열린다면 한번 더 달려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명훈군은 "먼 거리를 달리는 나라도 조금 아프고, 힘들었다"면서도 "힘들 때마다 조금씩 쉬어가면서, 화이팅하며 달려 완주할 수 있었다. 다같이 끝낼 수 있어서 기뻐다"고 말했다. 자신감도 생겼다. 조씨는 "25km 코스를 극복하고 나니, 조금 더 연습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에는 한 단계 위인 45km 코스에 도전, 함께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전거 학교' 동기들이 초·중급 과정을 마치고 처음 대회에 출전해 가을 라이딩을 즐겼다. 사진 왼쪽부터 김명희, 최숙경, 김은이, 양인자, 이용래씨.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자전거는 추억·행복 ... 안전하게 즐겨요"

'자전거 학교' 동기들 춤추고 기념촬영하며 축제 즐겨

대회 출발 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들뜬 표정으로 축제를 즐기며 눈길을 끈 이들. 구경에서 개설한 '자전거 학교'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배운 동기들이 초·중급 교육을 끝내고 처음 대회에 출전했다. 순위를 가리는 무대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과 함께 달렸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됐다. 양인자(58)씨는 자전거를 통해 '꿈'을 이뤘다. 그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게 꿈이어서 자전거 교

육을 받게 됐다. 처음 배울 때는 어렵기도 했다. 중심 잡는 게 힘들었다(웃음)"며 "사람들과 함께 달리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처음 출발선에 선 소감을 밝혔다. 김명희(55)씨는 '안전'과 '건강'을 외치며 안장에 오르고 있었다. "코로나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부담이 됐다. 실외에서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중요한 것 같았다"며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한 김씨는 "직장생활 하는 틈틈이 짬을 내서 교육을 받았다. 안다치고 건강하게 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이(46)씨는 자전거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날리고, 자신감을 키웠다. 그는 "자전거 속에서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

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이 우울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달라졌다.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 자존감이 생긴다. 아들에게도 자전거를 권유했다"고 자전거 애찬론을 펼쳤다.

이용래(59)씨에게도 자전거는 '행복'이 됐다.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우연히 자전거 교실을 알게 돼서 신청하고 배우게 됐다"며 "자연을 달리다 보면 행복해진다. 자면서도 눈에 자전거가 어른거린다"고 웃었다. 최숙경(50)씨에게 자전거는 확장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한 추억이다. 최씨는 "초·중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었다. 30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며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을 생각하게 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탈 수 있는 요령도 배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